



최초의 비구니 마하파자파티가 아라한과를 증득한 모습. 마하파자파티는 여성에 대한 불교의 단편 문헌을 연 첫 선지식이었다.

특집2 - 한국불교 '여성시대'를 준비하자

21세기 지구촌 화두 '여성'

2월 25일 한국 국민들은 사상 최초로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에 여성을 선출했다. '여성 리더'란 말이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비즈니스, 교육, 문화, 스포츠, 정치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이 활발하기 전례되고 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강하면서 부드러운 리더십' 등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리더십 스타일에도 여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류는 남·녀 구분을 넘어서 모두에게 내재된 '여성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1세기를 이끌 메인 키워드는 '여성'인 것이다.

한국불교에서의 여성 위상은?

하지만 한국불교에서 여성의 위상은 어떠한가. 1970년대 송광사 구산 스님 밑에서 비구니로 출가한 명상지도자 마르틴 베렐러는 세계 비구니 스님들 중 대만에 이어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지위가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비구니 교단과 그 수행 전통이 살아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다. 현재 자체적으로 비구니 구족계를 받는 승단이 존재하는 곳은 대만, 한국 정도다. 1960년대부터 역사가 시작된 대만불교에 비교해 1600년이 넘도록 전통을 지속해 온 한국비구니 승가는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불교에서 한국불교가 선구적이지만 불교 자체에서 여성불자들의 영향력이 대사회적인 활동이 미비하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불교에서는 오랜 전통에도 비구니의 '사회적 위상', 특히 교단 내에서 비구니의 지위에 아직도 많은 불평등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2012년 승적 현황을 보면 비구 5458명(51.3%), 비구니 5190명(48.7%)로 비구니 스님들의 수가 절반에 달한다. 하지만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 국장 이상 교역직의 절대 다수(비구 361명: 비구니 17명)가 비구 스님들로 이뤄져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운 스님은 "교구본사 산중총회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재적승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종회의원 80명 중 비구니 종회의원은 1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대에는 불교를 포함한 종교가 일반 사회 문제의 기대에 못 미치는데 특히 종교 전반에서 여성의 위치는 너무나 낮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사회에서 여성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종교에서 여성의 위치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특히 비구니 스님 등 종교 내부에서의 평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가 현대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기대에 비해 불교 내 양성 평등 의식이 사회변화에 비해 답보 상태라는 것이다.

여성불자 '기복'에는 '책임과 희생'이

전문가들은 여성불자들의 수행활동도 점차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대 한국불교에서 여성불자들은 기복에만

1600년 전통 비구니 승가

세계 종교계에서 유일한

교단 내 비구니 지위 불평등

양성평등의식 사회에 뒤쳐져

책임과 희생서 나온 '기복'

사회 향해 어머니 역할 다해야

치우치지 않았다. 신라 진흥왕 37년 안흥 법사가 중국에서 가져온 <승만경>은 당시 신라 여성 사회에 일대혁명을 일으켰다.

민성호 여성학 박사는 "승만경은 특히 신라 상류층 여성들의 신앙 모범이 됐는데 여왕 이름에 승만이 쓰일 정도였다"며 "대승보살의 지혜

와 자비심을 강조해 당시 여성불자들의 수행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고 말했다.

신라시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했다.

민 박사는 이어 "고려시대 여성불자들은 주로 독경과 시주 등 보시행으로 수행활동을 진행했는데 경전에서 가르치는 행동원칙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는 등 불경을 생활지침서로 삼아 살아갔다. 또 불교는 고려여성에게 종교이면서 사회를 접하는 장구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성불자들은 특유의 '기복' 성향으로 인해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성불자들의 수행이 수동적이고 타락지향적이라는 선입견은 여성불자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했다.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은 이런 선입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스님은 여성들의 기복행위를 '책임'과 '희생'이라고 분석했다.

스님은 "여성은 가족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통해 더 큰 자아로 성숙한다. 여성은 초월적 구원만 기다리는 존재가 아닌 가족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다하는 주체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로 '기복'은 그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명법 스님은 "책임과 희생은 모성에서 나오는데 이는 부처님께서 실천한 가르침과도 통한다"고 말했다.

이인자 경기대 예술대학 명예교수는 "모성은 곧 자비이다. 여성 불교 역시 자비의 사회화"라며 "여성들이 불교와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한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어 "특히 현대사회 여러 문제와 갈등 사안에 여성불자들이 '책임과 희생'을 승화시켜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여성개발원의 여성리더교육 장면. 다양한 활동에도 아직까지 불교 내 양성평등의식은 사회변화에 비해 뒤쳐진다는 지적이 많다.

21C 文化遺産 매니지먼트 시대로...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서진문화유산은...

- ▶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 실무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 국보·보물 등 다양한 보존처리 경험과 자문 및 컨설팅 활동을 통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 ▶ 산·학 연구시스템 구축(국립중앙대학교, 용인대학교, 건국대학교 등과 산·학 협력 협약체결 등)
- ▶ 국내 최초 문화재보존 컨설턴트, CRM(Cultural Resource Management) 개념 도입
- ▶ HIP(Heritage Interactive Panorama) 국내 최초 기획·제작
- ▶ 박물관 전시 기획·설계
- ▶ 국·내외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 형성

HIP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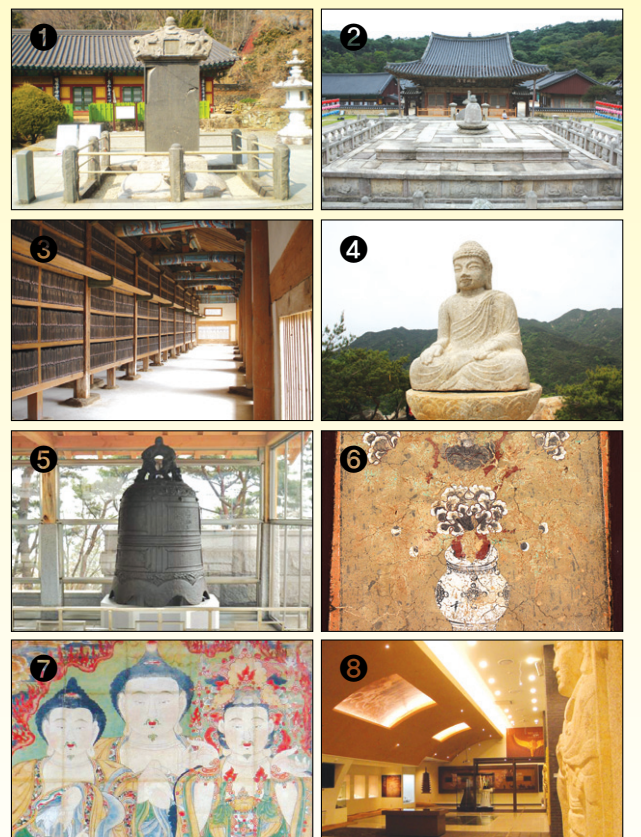
- 아름다운 사찰 및 문화재 360° 표현
- 불자들의 온라인 기도방(3D 참배)
- 신세대를 위한 온라인 포교 및 교육
- 홈스테이 활성 방안 제시
- 스마트폰 '앱' - 사찰 홍보 효과 증대
- 손쉬운 조작 - 접근성 용이
- 영구 기록보존
- 유료컨텐츠를 통한 수익창출

주요사업영역

- ▶ 문화유산 보존 - 석조, 목조, 종이, 섬유, 금속, 매장문화재, 유적보존, 벽화, 근대문화재, 3D스캔 및 비파과진단, 모형제작 및 복제, 환경미방제, 훈증소독, 방연처리 등
- ▶ 보존환경 관리 - 예방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보존방안 제시
- ▶ 보존 컨설팅 - 보존에 관한 자문, 설계
- ▶ CRM 영역
- ▶ HIP 기획·제작
- ▶ 박물관 전시·기획
- ▶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술개발
- ▶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한 자문·획득 - 강의, 연수교육
- ▶ 문화상품 기획·개발
- ▶ 기타(출판 및 디자인 관리 제작)

주요사업실적

- [국보 제 47호] 황제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보존처리공사 ①
- [국보 제 132호] 정미복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사업
- [국보 제 285호] 울산 반구대암각화 학술(3D)조사 용역
- [국보 제 290호] 풍도사 대웅전기단 및 금강계단 보존처리 사업 ②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인사 대장경판 DB를 위한 표준화작업 ③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방충방부사업
- [보물 제 146호] 창녕 관음사 약사전 벽화 보존처리
- [보물 제 218호] 논산 관음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공사
- [보물 제 295호] 창녕 관음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공사 ④
- [보물 제 925호] 하동 쌍계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공사
- [보물 제 1242호] 함천 해인사 김상탑 보존처리
- [시도유형문화재 제 3호 외] 중국철제법종 보존처리 및 보호罩 보수공사 ⑤
- [시도유형문화재 제 139호] 수다사 명부전 벽화 보존처리 공사 ⑥
- [시도유형문화재 제 165호] 부산사괘불 보수사업 ⑦
- [중요민속문화재 제 3호] 광혜군 내외 및 상궁옷 보수정비
- 한성백제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토충전시 및 복원)
- 신경주역사 신축공사중 유물복제 및 유구이전 ⑧
- 세계유산등재추진 공동화석(발자국) 레프리카 제작공사
- 연평도 전시자료 수습 및 보존처리, HIP제작
- 기타...



보존윤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